

메시지 5

그 영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며,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지켜지기 위해 몸에 의해 균형 잡힘

성경: 행 1:14, 2:2-4상, 14, 4:8, 6:5, 10, 8:29-30, 39, 13:1-4상, 9, 15:28, 16:6-7, 9

I. 우리는 모든 것을 반드시 그 영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한 최상의 일일지라도 그 영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종교가 된다.

- A.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백이십 명은 아무것도 형성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착수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다. 그보다 그들은 십 일 동안 거듭해서 기도했다(행 1:14). 그들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그 영 안에 있었다.
- B. 그런 다음 놀랍게도 그 영께서 그들 위에 부어지셨고, 그들은 완전히 그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 영 안에 있는 문제였다.
1.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열한 명과 함께 일어서서 말했을 때, 그는 그 영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지 않았다. 그보다 베드로는 그 영으로 충일했다 — 행 2:2-4상, 14.
 2.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을 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일했다 — 행 4:8.
 3. 스테반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행 6:5). 누구도 스테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 낼 수 없었다(행 6:10). 스테반은 그 영 안에서 살고 말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다.
 4. 빌립은 그 영 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복음 전파를 하겠다고 결정하거나 결심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했다.
 - a. 따라서 그 영께서 빌립에게 마차에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바짝 다가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그에게 달려갔다 — 행 8:29-30.
 - b.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준 후에, 그는 떠날 의도가 없었지만 그 영께서 ‘빌립을 데려가셨다’ — 행 8:39.
 - c. 복음 전파자인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그의 결정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그것은 그 영의 인도에 달려 있었다. 그 영은 빌립을 인도하셔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또한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빌립을 데려가셨다.

II. 우리는 운동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살아 있는 움직임 안에 있다.

- A. 우리 모두는, 특별히 청년들은 그 영 안에는 운동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그 영께서 인도하셔야 하고, 그 영께서 일하셔야 하며, 그 영께서 말씀하셔야 하고, 심지어 그 영께서 우리의 생활을 사셔야 한다.
1.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영으로 적셔지고, 절대적으로 그 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그 영의 말씀하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 영의 행하심이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그 영의 일하심이다.
 2.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운동도 보지 못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을 본다.
 3.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살아 계신 그 영을 따라 된 것이었다. 어떤 일도 사람이 정한 결정을 따라 일어난 것은 없었다.
- B. 사도행전 13장에서 신언자들과 교사들은 어떤 일들을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 행 13:1-4상.

1. 이것은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한, 그 영 안에 있는, 그 영과 함께하는 움직임이었으며,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실하고 추구하는 지체들이 하늘들에 계신 머리와 동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2.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계획표에 따른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무리의 지체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며 금식함으로 몸의 머리이신 분께 기회를 드렸다. 그 결과 그 영이신 주님은 그분의 위대한 위임을 수행하도록 그들 중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다. 이 위임은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 이방 세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도록 그분의 왕국을 확산하는 것이었다.
- C. 사도행전에는 운동에 속한 것이 전혀 없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살아 있는 인격의 살아 있는 움직임만이 있으며, 이 살아 있는 인격은 바로 성령이시다.
1. 바나바와 사울(바울)이 거짓 신언자인 마술사와 마주쳤을 때, 우리는 바울이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본다 — 행 13:9-10.
 2. 사도행전 13장 2절은 바나바를 사울보다 먼저 언급하지만, 앞장서서 말한 사람은 바울이었다. 바나바와 바울은 회의를 열어서, 바나바가 “이제부터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돕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3. 거기에는 인간적인 토론이나 결정이 없었다. 그보다 살아 있는 인격이신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 영으로 충일한 사람이 말하였다 — 행 13:9.
- D.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의 회의가 15장에 나온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 어떤 문제를 돌보았고, 28절은 “성령과 우리는 ... 좋다고 여겼습니다.”라고 말한다.
1. 이 회의에는 의장이 없었다. 주재하시는 분은 그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골 1:18), 모든 사람의 주님(행 10:36)이셨다.
 2. 바울과 바나바와 어떤 다른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할례에 관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온 근원지였기 때문이었다(행 15:1-2, 5-6).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본부가 없고, 다른 교회들을 통제하는 우두머리 교회도 없다.
 3.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본부는 하늘들에 있으며(계 4:2-3, 5:1, 단 4:26),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골 1:18, 계 2:1).

III. 우리는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반드시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해야 한다.

- A. 사도행전으로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 B. 우리는 주님이나 주인이 아니며, 또한 추수의 주님도 아니다(눅 10:2, 요 4:35). 오직 주 예수님만이 추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주인과 몸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존중해야 한다.
- C.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들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 D.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주인이시고 몸의 머리이십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이들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고, 또한 그렇게 할 지위나 권위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앙망합니다. 저는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저의 동료 일꾼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교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 E. 우리는 모두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모독할 것이고, 결국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실 것이다. 머리의 권위는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께만 주어졌다. 오직 그분만이 머리의 권위를 가지시며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인도자이시다 — 엡 1:10, 22, 골 2:10, 고전 11:3, 마 23:8-12.

- F. 전통적인 기독교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추수의 주님으로, 곧 일의 주인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비극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 비교 고후 2:12-17.
- G. 비록 주님께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왕국 복음을 전하러 나갈 부담을 주셨을지라도(마 24:14),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운동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1.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린 결정은 모두 그 영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2. 우리 중 누구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주님께 얼마나 큰 모독인지!
 3.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말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위치를 강탈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 가장 큰 모독이다.
 4.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접촉하도록 도와야 한다. 젊은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전혀 접촉하지 않을 수 있다.
 5. 우리는 주님에게서 부담을 받고 인도를 받아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6.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인도에 대해 분명해질 때까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
 7. 주님께서 캠퍼스로 움직이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로 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으나, 어쩌면 주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여러분이 캠퍼스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운동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의 인도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일 것이다.
 8.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운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주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야 한다.
 9. 우리는 모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님께 갈 수 없다는 이 공과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러한 것은 성직자-평신도 제도이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최근에 온 새 신자조차도 여전히 직접 주님께 나아가야만 한다.
 10. 결국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여쭙었고, 주님께서 내가 그곳에 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제가 우리를 격려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는 결코 안 된다.
 11. 결코 아무에게도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운동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는 영적인 가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12.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 영의 문제이다.
 - a. 사도행전 16장 6절은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이들에 관해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라고 말한다.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7절)
 - b. 결국 밤에 바울에게 이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행 16:9)라고 하며 그에게 간청하였다.
 - c. 이것에 의해 우리는 사도들이 그들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고 일했다는 것을 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일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여 주님이 되게 할 것이다.

- d.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직접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말라.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분께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여쭙어야 한다.
- e. “나는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단지 구호로 말하지 말라. 참된 흐름은 주님 자신이다. 운동을 부추기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 f. 주님의 회복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든지 그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직접 주님 자신께 가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 g.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전환을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당신을 모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도를 위해 당신을 양망함으로써 우리의 머리와 주님이신 당신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 h. 이것은 기독교의 가련한 역사의 반복이 아닌, 주님의 회복이다.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지도 말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지도 말라. 주님께 가서 기도하라. 이것이 합당한 길이다.

IV.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우리는 몸에 의해 균형 잡혀야 한다.

- A. 인도하는 이들이 많은 기도 후에 참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교통을 통해 그들의 부담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 B. 결국 성도들은 주님에게서 개인적인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그 인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도 개인주의적이거나 반역적이지 않을 것이다.
- C. 그 영과 몸은 우리를 균형 잡아 준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받은 인도가 몸의 느낌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D. 인도하는 이들은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이 어느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통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 E. 결국 어떤 사람은 주님에 의해 부담을 받고 인도를 받아 어느 곳으로 갈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갈 부담을 받을 것이다.
- F. 기도 이후에 교통이 뒤따른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통한 후에는 주님의 인도에 대해 분명해질 것이다.
- G.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위치를 강탈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나 교통이 없이 어느 곳으로 이주한다면, 시험과 고통과 박해가 올 때 우리는 흔들릴 것이다.
- H. 우리가 기도하고 교통한다면, 우리는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런 후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주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주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비교 골 2:19.
- I. 우리는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인도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강화되고 주님의 권위를 입을 것이다.

V. 교회들 안에서나 성도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곧 그 영과 몸을 주의해야 한다 — 엡 4:4상.

- A.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그 영인가?”라고 질문하며, 또한 “이것이 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 B.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영 안에 있으며,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돌보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 C. 그 영 안에 있고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지켜지는 것이다.